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에서 본 이주민 선교

비서구가 선교를 주도하는 시대에 즈음하여 한국 선교계의 응답이 모인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가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선교사, 청년 리더, 여성 리더, 평신도 리더, 선교사 교수 등 6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아시아복음주의연맹(AEA), 아시아선교협의회(AMA), 중남미선교협의회(COMIBAM)의 임원들이 자리에 함께해 한국의 선교전략회의를 평가하고 각 나라와 선교연합회를 대표하여 의견을 더하였다. 다음은 싱가포르 선교연합회 직전 회장인 로렌스 코(Lawrence Ko) 박사의 NCOWE 발제 내용이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 선교 전략과 접근의 방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화는 도시화, 기술의 발전, 디아스포라, 난민, 팬데믹 등 선교적인 대응이 필요한 총체적 추세를 초래했다. 앞으로 세계는 높은 비율로 도시화될 것이며, 따라서 도시는 21세기의 선교현장이다. 미

전도종족 역시 도시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배움에 수용적이며 훈련을 통해 역파송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잠재적 선교사들이다.

빈곤의 위기, 번영이 가져다준 위기, 경제적 위기에서 환경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수많은 위기는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다음세대와 함께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교회는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여전히 또 다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이에 도시선교는 문화와 사회 통합을 끌어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선교에는 전달과 상황화뿐만 아니라 부분 토착화와 자선교회화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갈수록 별별 일이 생겨나는 세상 속에서 선교관계자들은 순교를 포함한 모든 고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상은 변했고 '새로운 풍경'에 대비하여 새로운 대응과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새로운 결과를 보고 싶다면 지난 100년 동안 해온 일을 답습해

서는 안 된다. 사역은 예상되는 것보다 검증되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지금까지는 개척한 교회와 회심자의 수를 세는 것에 주안점이 놓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양적인 것이 아닌 질적인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선교가 재정적 지원, 지역사회와의 관계, 비자 발급, 신뢰 등의 측면에서 점점 더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능동적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한다. 예컨대 자비량 선교사와 해외 이주민 근로자를 파송한다면 비자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자립이 가능하며 현지의 정체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역사회와 수월하게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이처럼 선교의 과제는 다양성 속에서 협력과 상호성의 정신을 발전해 나가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더욱 끈끈한 관계와 그 안에서 기도하고 협업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일에 동참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역자 주도 또는 경력 선교사

주도의 선교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는 평신도를 훈련하고 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성도가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이끌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로서 자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초대하신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어디든 전 세계를 아울러 우리를 부르신다. 그분의 부르심은 하늘과 땅의 권한을 지니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대위임령을 성취하고, 그 비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관한 이번 NCOWE의 결의 중 하나는 대위임령 성취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네트워킹을 이루는 데 있다. 이에 디아스포라신문은 NCOWE에서 논의된 한국선교의 주요 사안과 관련된 10가지 세부 주제 중 디아스포라 이주민 발제를 모아 7월호에 담아보았다.

합신세계선교회(HIS) 다문화 사역 형태와 과제



합신세계선교회(HIS) 본부장

글

김충환 선교사

합신세계선교회(이하 HIS)는 장로교 합신총회 선교부의 선교사역을 담당하는 선교회로, 전 세계 45개국에 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HIS는 지역교회 중심의 다문화-이주민 사역과 선교사 중심의 국내 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선교회 운영규정에 '국내 외국인 사역 선교사' 규정이 따로 있지만, 본 글에서는 '다문화 사역'으로 통일하였다.

초기 국내 다문화 사역은 선교현장에서 철수한 선교사가 경기도 인근에서 근로자,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문화센터 형태로 시도되었다. 본격적인 사역은 2018년 이후 현장에서 철수한 선교사들이 국내 사역으로 전환하면서 시작되었다. 2019년 10월에는 정식으로 HIS 국내지부가 결성되었고, 유학생·이주민 사역 등 다문화 사역을 세계선교의 한 축으로 인정하며 소속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철수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 현장사역에서 국내 사역으로 전환한 선교사 5가정이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HIS의 다문화 사역 형태는 크게 유학생 사역과 교회개척 사역으로 나뉜다. 유학생 사역은 수원지역 중심의 아시아권 유학생 사역, 용인 명지대학 중심의 유학생 문화센터, 대구지

역 중심의 대학교 캠퍼스 사역으로 시도되고 있다. HIS의 유학생 사역은 기존의 캠퍼스 선교단체(CCC, ISF 등)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명지대학의 경우 학교 측과 협력을 통해 정식 수업을 진행하여 안정적으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예배와 신앙모임(동아리 모임) 형태로 모이고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를 비롯한 유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역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교회개척 사역은 선교사가 소속된 노회와 협력하여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개인사정으로 현장에서 철수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경기도 광주에서 방글라데시 근로자 사역, 부천지역에서 인도네시아 이주자 사역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교회와 이주민센터 형태로 사역이 발전하였다. 이외에도 부산지역에는 러시아 이주민을 위한 러시아어권 교회가 2019년에 설립되었고, 김해와 광주 등 각지에서 외국인 교회 형태로 사역이 이뤄지고 있다. 합신교단과 해당 노회는 지속적으로 다문화 사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문화 사역 형태의 교회개척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HIS는 향후 다문화 사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HIS 선교사의 국내 다문화 사역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계속 보완하고 있다. 또한 이전까지는 해외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가 국내 외국인 대상 사역으로 전환하는 경우만을 인정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선교회에서 마련한 훈련과정을 수료할 경우 허입절차를 통하여 '국내 외국인 사역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훈련과정과 허입절차를 신설하였다.



▲ 다문화 사역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광주 갓플리징교회(고려인 사역)에서 모여 선교포럼을 진행하였다.

HIS는 다문화 사역을 위해 선교회와 교단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먼저 지역교회와 선교사와의 동역을 들고 있다. 선교사 단독으로 효과적인 다문화 사역을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교회 차원의 목회적 돌봄과 성도들의 열린 마음, 선교사와 함께하는 실천적 동역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둘째로는 다문화 사역을 위한 훈련 및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말한다. 이러한 훈련 및 교육은 다문화 사역을 준비하는 선교사뿐 아니라 지역교회의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장로 및 중직자) 대상으로도 꼭 필요하다. 특히 노회 선교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세미나와 교육과정 개설은 주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과제로 여겨진다.

셋째로는 합신교단 차원에서 다문화 사역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제도 보완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비록 HIS에서 다문화 사역이 인정되어 '국내 외국인 사역 선교사' 파송과 국내지부 결성이 진행되었지만, 다문화 사역 중심의 국내 교회개척과 선교 재정후

원 및 사역보고와 평가 등의 제도적 조항 마련에 합신교단과 노회가 더욱 힘써야 한다. 향후 교회의 미래와 세계선교에 있어서 다문화 사역의 중요성 인식은 교단 차원에서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HIS는 다양하고 실천적인 다문화 사역을 통해 세계선교의 의미 있는 열매 거두기를 기대한다.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월 교단별 이주민선교 관련 배경과 현황을 게재한다. 8월호는 침례 교단이 실린다.

NCOWE 발제 34-6-8-10-11면

KIMA 연구보고서
대상별 선교전략 7면

마지막 시대의 모략: 디아스포라 9면

이주민 선교 위한
찬양 유튜브 채널 개설 12면

To convene a catalytic gathering and conversation among leadi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of diaspora missions of Asians worldwide and in Asia.

A CONSULTATION ON DIAPORA MISSIONS IN AND BEYOND ASIA

Theme : Asians in Diaspora and Diasporas in Asia

Date : August 1 (Tuesday 2:00PM) - August 5 (Saturday 2:00PM), 2023.

Venue : Shalom Hotel, Jeju Island, South Korea

Objectives:

- Learn and discuss about mission by, through and among Asian diasporas Worldwide.
- Assess the impact of migration to, within and from Asia.
- Explore new horizons for diaspora missions in the contexts of economic migrants, international students, family migrants, internal migrants and forcibly displaced peoples.
- Create a forum for scholars and practitioners to network and collaborate.
- Compile proceedings of the consultation into a future publication.

Sponsored by:



Save The Date

August 1 - August 5, 2023
Await Registration Details

Visit www.global-diaspora.com for more details

다문화사회 환경 속 한국교회 인식변화와 실천적 제안



중앙아시아유학센터 대표

글

전숙 선교사

1. 이주민에 대한 '환대 선교' 실천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한국교회의 두 가지 태도

다민족·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 가운데 이주민을 향해 '환대 선교'를 실행하려면 두 가지 면에서 한국교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단일민족주의에서 비롯되는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이다. 단일민족주의 정서가 강하다 보니 이주민선교에 대한 지역교회의 관심과 호응이 적고 외국인 혐오증도 심각한 수준이다. 다문화사회가 중시하는 두 가지 가치는 다양성(diversity)과 통일성(unity)이다.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은 "국민국가의 분파주의와 분열"을 초래하고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은 "문화적 억압과 헤게모니"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통일성 간에 정교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다문화 민주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핵심 목표이다 (Banks, 2016:50). 한국은 오랜 기간 단일민족의식을 갖고 언어와 문화, 역사를 공유하며 동질성이 강한 한민족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을 한국의 시민으로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환대 선교'를 실천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두 번째 태도는 한국교회의 일방적인 시혜자(施惠者)적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기부자와 수혜자 사이의 종속과 지배 관계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벗고,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먼저 초청받은 이방인'으로서 공동의 정체성(Communal Identity)을 형성하고, '디아스포라와 함께(With Diaspora)'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요 1:14).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보여 주셨고 충만한 형태의 은혜와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실 수 있었다. 한국교회가 무슬림을 포함한 타 종교권 이주민을 향해 이분법적 거리감을 제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니는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을까?

2. 실천적 제안

1)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이주민선교를 위한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운영하는 방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주민을 직접 만나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이주민의 고충을 두려움과 편견 없이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은 드물다. 이미 교회 안에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적지 않고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분들도 있다. 사랑의교회는 2018년 디아스포라 선교회를 조직하고 매년 가을 10주 과정의 <이주민선교를 위한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성도들에게 이주민선교의 중요성과 현황, 이주민선교의 실재를 교육한다. 동시에 한국어교사로서의 기본 소양과 자신감을 갖추게 하여 이주민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각 지역의 중대형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타 교회 성도들도 참여 가능한 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면 지역사회의 모든 교회가 교회 주변에 있는 이주민에게 직접 다가가 한글을 매개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선교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2)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해외선교사와 국내 이주민선교사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독교를 배척하는 타 종교권 국가에서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를 훈련하여 세우는 일은 한국교회와 선교사가 감당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타 종교를 믿고 있던 한 사람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기까지는 오랜 기다림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한국도 이주민 수용국가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선교사들의 전도와 양육을 받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와 그 현장에서 온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국내 이주민선교사가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누구의 열매인가

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한다는 일념으로 서로 신뢰하면서 한 영혼을 공동 양육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삼겹 줄 동역의 시너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3) 이주민과 한국 성도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 형성

이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한국인 친구다. 국가 정책적으로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어서 이주민의 삶이 개선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주민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바로 정서적인 외로움이다. 물론 같은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서로 의지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이주민에게는 한국인 친구와의 우정 어린 관계와 교제가 필요하다. 이주민선교 현장이 자꾸만 주변으로 밀려나가 지역교회 성도들의 일상적인 교회 모임에서 이주민을 만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교회는 명실상부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은 이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저들의 가족이 되어 줄 때 저들도 우리를 가족으로 맞아줄 것이다.

<인용문헌>

Banks, A. J. (2014).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5/E. Pearson. 모경환, 최충욱, 김명정, 임정수 역(2016).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Korea

우리는 예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JvMI Korea는 특히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를 주목합니다. 복음을 담아 구제하며 기동성이 빠른 이동클리닉을 통해 치과, 안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체적 필요를 지원하며 예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ww.jvmikorea.org

국내 우즈벡 무슬림 현황과 동반자 선교 비전적 대안

경남 김해 우즈벡케어센터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1998~2018)
김해 U비전센터 대표, FMB



정영섭 선교사

이주민은 세계적 현상이자 의심할 여지 없이 전 세계 모든 지역교회의 사역 대상이 되었다. 앞으로도 국제 이주민은 끊임없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 무슬림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최근 한 도시의 이슬람 사원 건축 건처럼 서로 이해가 부족했던 동거는 갈등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무슬림 선교의 방향은 갈등이 아닌 환대를 통해 '동반자 비전'에 두어야 한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니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처럼 이주민들과 함께 사는 이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고 열매 맺도록 복음으로 환대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한 동반자로서의 이주민 선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30만 이상의 이주 무슬림이 있다. 전국에 등록된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는 23곳이 있고, 이슬람 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기도처인 무살라는 221곳이 있다. 더욱이 한국인 무슬림의 수도 이미 7만을 넘어 곧 10만 명 시대가 된다고 한다. 국내 선교 중에서도 무슬림 선교는 더 이상 고민 차원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남은 마지막 사명의 차원에서 놀라운 선교의 기회라고 확신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 상위 10개국 안에 유

일한 이슬람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다. 한국의 무슬림 선교는 전방위 선교가 되어야 할 만큼 다양한 곳에서 제도화의 조짐을 보인다. 부산 이슬람 연합회는 현재 김해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50곳의 이슬람 사원이 있다고 보고했다. 사실 김해 지역은 고대 가야의 발원지이며, 삼국유사에 의하면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후는 인도 아유타국 출신으로 10명의 자녀를 낳아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의 시조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 기록으로 보았을 때 김해는 한국의 첫 이주민 도시이자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이 시작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해 김씨가 인구 중 가장 많은 700만이나 된다고 하니 가히 대한민국은 이주민의 국가이다.

김해에는 52개국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그중 이슬람협력기구(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OIC)에 속한 나라의 이주민의 수는 6천여 명이다. 또한 그중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인 우즈베크의 인구가 2,600여 명이다. 김해 외국인 거리는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곳을 지나는 이들은 김해의 이주민 3만 명을 포함하여 주변 도시 이주민까지 합쳐 7만 명에 이른다. 또한 전통시장 중심으로 5개의 이슬람 사원이 모여 있어 특히 이슬람 기도시간 후인 금요일 낮에는 사원마다 150~200명가량이 모이고, 전체적으로는 기도를 마친 천여 명의 무슬림 집중 현상이 생긴다. 이들은 이슬람 명절인 두 번의 '하이트 메이라트'에 국가별로 연합기도회를 가진다. 이를 위해 김해 무슬림 연합회는 연합기도회를 진행할 공간을 요청하고, 시에서는



▲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자 기도처와 체육관 등의 제한된 공간에서 예배하도록 협조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수백, 수천 명이 나라별로 모여 집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시청 앞 풋살장에서 전체로 모여 명절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김해시에 3,000명이 예배할 대형 사원 건축과 더불어 금요일 낮 집회 시간에 전통시장 종로길의 차량을 통제하여 길거리를 기도장소로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김해시는 난감해하며 지역민들의 반대 정서 여론에 따라 무슬림의 상황도 관찰하는 중이다.

필자는 안식년에 방문한 지역교회에서 김해 우즈베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방문하여 관심자들과기도회를 가지다가 2019년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의 필요가 한국어 공부, 일자리, 의료 지원, 분쟁 해결 그리고 비자 문제 등인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현지의 우즈베크인과 국내의 우즈베크인에게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내 무슬림은 기독교의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어서 접근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해외에서

는 선교사가 나그네 되어 현지인을 만나고 도움을 받으며 현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면, 국내 사역은 나그네로 온 이들에게 하나하나 노출하면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만남을 지속하며 사역이 시작되고 이내 반가운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얼마 못 가 주변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알려져 보안상 주일 예배를 늦게 시작해야 하는 고충도 있었다. 여러 가지 민원 도움과 한국어 교육, 공간 확보 등이 지역교회와 성도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사역 중에서도 국제심방은 이주민 사역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사역 중 귀국하신 분들과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의 고향 집을 방문했는데, 그 가족들의 엄청난 환대와 환영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국내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처했던 분들이 현지에서는 가족과 지역과 민족의 대표이자 영웅으로, 복음의 다리로 그 자리를 빛내고 계셨다. 우리를 환대하는 그 가족과 마을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연스럽게 그 영혼들을 현장교회 리더들에게 위임하는 과



FEED THE CHILDREN®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정도 이어졌다. 이듬해 그곳을 다시 방문하여 수련회에 그들을 초청하였는데, 자녀들 및 친척들 16명이 참석하여 3명이 침례 받는 은혜가 있었다. 이들과의 만남은 환대와 복음의 멋진 콜라보 사역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무슬림 사역처럼 국내 사역 역시 주의하여 접근해야 한다. 예전대 무슬림들에게 처음부터 기독교의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어린양 예수"를 전했을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린양 전도법'은 필자가 우즈베크 사역을 하면서 사용한 전도 방법으로, 모든 이슬람 문화에서 전통으로 잡는 어린양의 의미를 '구속적 유비'로 재해석하여 무슬림에게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방법이다.

이슬람은 기독교의 근본인 성경을 부인하며 인간의 원죄까지 부인하는 종교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거부한다. 무슬림은 기성세대와 기성문화를 거부하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이슬람을 신비롭게 포장하여 접근하고, 소수자란 이름으로 한국 사회의 안방에 자리 잡았다. 따라서 국내 무슬림 선교는 교회가 나그네와 이웃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 교회 다음세대의 사활이 걸려있다. 동시에 최선의 선교 기회이기도 하다. 국내 이주 무슬림 선교는 미개척 분야다. 따라서 무슬림 선교의 경험자와 전문가가 필요하며 사역의 중심에는 지역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또한 한국교회가 주관하는 교회가 아닌 이주민들이 고백하는 자신화한 자신들의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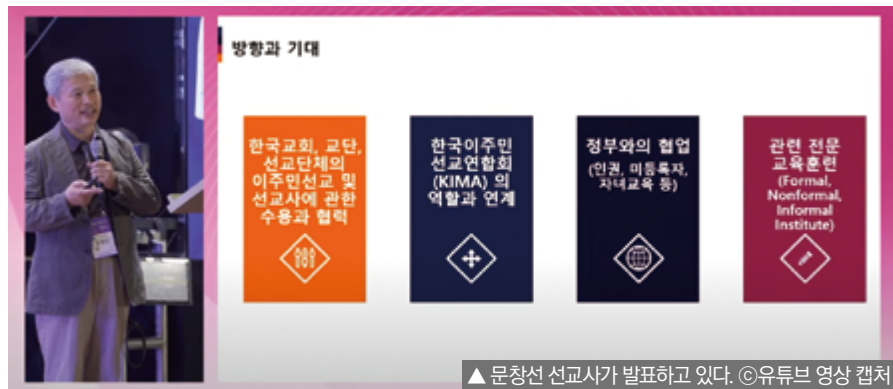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기존의 선교는 나라와 민족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전하는 '속지주의 선교'였지만, 이제는 국제적 이동을 통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각 지역으로 찾아온 열방의 이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속인주의 선교'가 중요해졌다. 지역에 제약을 받지않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교시대가 되었다. 말씀대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은 변방의 이주민을 통해 중심을 바꾸어 나가셨다.

이주민 선교는 지금 즉시 누구나 어디서든 실천 가능한 사역이다. 어느 지역이든지 자원하는 사람이라면 사역에 협력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역을 실

천할 수 있는 즉각적인 선교다.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성도 개인이 이주민을 방문하여 초청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미 이주민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 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들과 동반자 되어 새로운 비전을 향해 열린 사고로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확신한다. 지금까지 이주민을 복음 듣고 돌아가야 할 손님으로 대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그들이 열매 맺도록 돕고 함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동반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이주민을 복음화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주민과 협력하고 동역하여 비전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www.diasporanews.kr

2023 제8차 NCOWE 디아스포라 트랙, 어떤 내용 다뤘나



▲ 문창선 선교사가 발표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 (NCOWE VIII)에서는 10개 트랙별 선택 세미나와 모임을 통해 주요 선교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와 실천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15일 오후에는 각 트랙에서 14~15일 양일간 세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는 트랙 종합 리포트가 진행됐다.

트랙 리더 3명 중 대표로 발표한 문창선 선교사(위대국제선교회 대표)는 "NCOWE(엔코위)에서 이야기 된 남반구 선교의 약진, 현지인 선교 중심으로의 전환, 다양한 선교의 수용 등 '세계 선교의 흐름'과 비서구 주도의 선교 촉진, 속인선교로의 전환 모델, 지역교회의 선교 참여 제시 등 '디아스포라(이주민) 선교'의 도전이 있다"며 "한국으로 모인 약 250만 명의 이주민을 대

상으로 하는 이주민 선교에서 세계선교의 흐름과 한국 지역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 모델에 '디아스포라'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랙 모임의 대화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용어로 '초국가주의', '다원주의', '제노필리아', '환대와 포용', '위기와 기회'를 소개했다.

문 선교사는 또 "이주민 사역은 씨줄과 날줄의 차이로서 함께 아름답게 직조해 가기 위해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초국가주의와 다문화 가정 출신의 2세들에 대한 교육, 함께하는 사회통합, 단일문화권에서의 타문화 사역과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댔다"고 보고했다.

문 선교사는 특히 귀국 선교사들이 증가한 데 대해 "속지"에서 '속인'으로

서의 선교, 파송 기관의 선교사 수용, K-Mission(K-미션)으로서 훌륭한 효과와 선한 영향력을 내놓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고, 지역교회의 다양한 참여와 모델로는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다문화교회의 차원에서 모자이크교회, 이주민과 함께하는 교회, 이주민을 위한 교회, 이주민에 의한 교회 등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방향과 기대에 대해 문 선교사는 "① 한국교회, 한국교단, 파송 선교단체들의 이주민 선교, 이주민 선교사에 관한 수용과 협력 ②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의 역할과 연계 ③정부와의 협업(인권, 미등록자, 자녀 교육 등) ④관련 전문 교육 훈련에서 한국교회와 교단, 선교단체가 잘 감당하고, 주도할 것"을 제안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www.globaluniversity.kr

글로벌대학교

Global University

미국연방정부 BA학사학위(신학과, 기독교교육과)
대졸, 신학졸, 전문대졸 편입가능
한글, 영문 택일 / 혼용
02-3662-1004

국내 이주민선교의 역파송에 관한 사례 및 로드맵

안산 새생명태국인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새생명태국인교회 담임목사
KIMA 태국위원장



글

홍광표 목사

현대사회는 세계화로 막대한 변화를 겪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선교사역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이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지금껏 우리가 감당해 온 선교를 재정비하는 상황으로 이끌었고,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도록 만들었다.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이주를 명령하신 하나님' 그리고 몸소 '이주하신 하나님' 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는 '이주'하거나 '이주를 당하여' 선교하는 것과 '이주'한 사람들을 선교하여 '이주시키는 것이다. 이사야서 66장 18~21절에 근거한 성경적 이주민선교의 역파송은 본토로 돌려보내는 것을 넘어서 제3국, 즉 타문화권과 세계 열방으로 파송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새생명태국인교회는 이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역파송을 위해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실천을 하고 있다. 먼저는 공동체 사역을 통해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태국 현지 신학교들과의 연계 사역을 통해 신학교 정규과정을 열고, 국내 태국 이주근로자들을 도전하여 2023년 현재까지 17년간 70명이 넘는 신학생들을 배출하였다. 그중 졸업생을 중심으로 태국 현지



▲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안산 새생명태국인교회 태국인 성도들

6개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1개의 기존 교회에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태국 북부지역에서는 졸업생 다수가 지역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으며, 대만과 이스라엘에서 태국 이주민교회 예배 사역을 감당하고도 있다.

개척한 6개의 교회 중 1개의 교회는 기존 교단에 소속했고, 나머지 5개의 교회는 연합하여 '태국 복음주의 연맹(EFT)' 산하에 새생명비전교회연합(웅견 크리스챤 니믹 치윗마이)이라는 이름으로 교단을 세웠다. 이 교단은 현지 교회의 자발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졌다. 본 교단의 새생명비전방국교회는 속지에서 속인 개념을 적용하여 타문화권 선교로써 방콕 람쌍 지역의 캄보디아 근로자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새생명태국인교회 역파송의 특이성은 태국 이주민이 역파송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 스스로가 역파송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있다. 본래 그리스도인이었던 태국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태국 현지에 교회 개척과 더불어 교단을 설립하여 선교사 파송구조를 세우고, 교단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한 타문화권 선교를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라오스 아웃리치를 통한 단기선교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목회자 및 평신도를 위한 전략적 선교사역 훈련으로 BAM(Business as Mission)을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법인회사(New Life Corporation Ltd.)를 설립하고 커피 프렌차이즈(Cafe Vie Nouvelle) 사업을 통해 14개의 가맹점을 열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의 중고 의류 및 가방, 신발, 모자 등의 폐자원을 자립자원으로 활용하여 중고 의류 아울렛(New Life Outlet) 가맹점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립교회 개척 모델로 소개할 계획이 있으며, '자립(自立), 자치(自治), 자전(自傳)'을 넘어서, '자신학화(自神學)'와 '자선교신학화'에 대한 도전으로 현지 사역자인 쏘뱃 목사나 또는 목사나 목회학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이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새생명태국인교회의 '교회 개척 로드맵'은 총 4단계(12년)로, 개척기·정착기·성장기·확장기로 나누어지며 사역을 후원하는 한국교회와 깊은 연대를 강조한다. 첫 번째 단계인 '개척기(3년)'는 한국교회가 인큐베이팅하는 단계로, 전적으로 재정과 인적 자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외부에 시설을 임대하여 쉼터를 포함하여 설계하고, 임대료와 사역자의 사례비까지 감당하여 이주민교회 개척 사역자가 전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전도 전략으로 한국어 강의와 노무 관련 상담, 의료 상담 및 지원 등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쉼터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이주 근로자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3년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적 세계관이 그들 안에 심어지기에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쉼터를 통해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 사역자가 상주해야 한다. 사역자 없이 쉼터만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실제 교회 쉼터에서 술판, 도박판이 벌어진 사례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착기(3년)'이다. 개척기에는 전도에 전념하고, 이를 통해 회심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키고 이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단계이다. 그 다음 단계인 정착기에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임대료와 사역자 사례비의 50% 정도라도 부담을 갖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람이 되는 교회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 055-637~5513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웅 서 훈 최기천 김승운 문향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은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춘 강현성 유진옥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경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명 무임장로 / 김진옥 김성현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운탁 박광운 옥치안 이흥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옥,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신,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재,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성글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기관

그리고 인큐베이팅해 준 한국교회의 경제적 지원은 줄여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립, 자치, 자전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성장기(3년)'로,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자란 성도들에게 풀타임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지 신학교 또는 한국의 신학교와 MOU 등을 맺고 신학 공부를 도전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개척한 새생명태국인교회는 태국의 방콕 BBS신학교와 방콕 TPS신학교와 협력하여 국내에서 태국인근

로자들이 현지 신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 번째는 '확장기(3년)'이다. 이 시기는 신학을 공부한 성도들이 태국에 귀국하여 현지 교회를 개척하는 단계이며, 또한 타문화권 선교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인큐베이팅해 주었던 한국교회는 이주근로자 성도가 개척한 현지 교회에 단기선교팀을 보내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적·사회적 역량과 입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가 된 이주근로자 성도와 함께 주변 국가로의 단기선교를 계획하여 타문화권 선교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

국내 이주민선교는 곧 세계선교이며, 열방선교이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세계화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 한국교회를 향해 선교사역의 전환을 요구하셨다.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국내로 역이주했으며, 다시 선교지로 나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것을 세계화에 따른 이주민 팬데믹 차원으로 해석하여서, 한국 선교계가 국내 이주민선교의 역파송(Reverse Mission) 전략으로 사역을 전환하여 하나님의 선교 완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www.diasporanews.kr

다문화사회 현장에 대한 유감

디아스포라신문은 정기적으로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의 연구보고서 <국내 이주민선교 기반 구축을 위한 대상별 선교전략 개발> 본문을 발췌하여 연재하고자 한다. 본고는 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서 '이주민 선교의 선교신학적 당위성과 선교전략 기반구축의 필요성' 내용을 수정·요약한 글이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산업화 과정이 일기 시작하던 60~70년대에 걸쳐 저학력·저연령·저소득층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다시피 했다. 이들 노동자들에게는 절대빈곤의 상태만 벗어나게 해준다면 노동하겠다는 의지의 일반화가 그들 실존적 정체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노동임금의 상승과 인력의 고갈상태는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산업노동계에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경제시장의 통합현상이 서서히 불거지면서 제3세계 노동자들의 이주가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하

나의 구조적 해결책으로, 인력 송출국 차원에서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기대와 개인적 희망의 실현으로써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세계적 추세로 이어졌다. 이제 한국 산업현장에서의 외국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산업 발달 초창기의 자국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저임금·3D·저소득층의 새로운 대명사로 떠올랐다. 외국 이주노동자들 중 다수가 자국에서 교사 또는 공무원 출신 등의 고학력 소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더 나은 노동조건과 경제적 기대를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실현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하나의 획일적 집단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이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친구로, 혹은 적으로 우리 문화와 삶 속에 깊이 관여되리란 것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으며 의심해서도 안 된다.

독일의 경우 양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강압과 자의에 의해 여러 형태로

밀려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60년 가까이 정착 역사를 써 내려갔지만, 이들은 여전히 독일사회의 큰 사회문제로 남아있었다. 결국 이들은 여러 면에서 독일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제공자 역할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그들이 자국에서 의사·교사·공무원 등 지식계층의 구성원이었더라도, 독일사회에서는 단순 노동자로 전락되고 취급받았다. 또한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재사회화되는데 유입될 수 없었다.

이제 이들은 어느새 독일사회 구성원으로 유입되고, 거리에서 걸인과 범죄와 값싼 섹스상대자로서 그 사회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이 상호 간의 관계는 어느 모로 보나 진지한 신뢰를 쌓기보다는 이주노동자를 활용도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계로 발전하기 쉽다. 자녀를 비롯한 독일인 다음세대들은 이러한 관계의 악순환에 그리 명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이주노동자들과의 공동의 역사로 돌입 및 발전해

가고 있다. 이주자들은 독일 가정의 장모, 장인, 아내, 남편으로 뒤섞여 독일사회에 편입되면서 더 많은 쓰라린 경험들, 예컨대 심리적이고 종교적인 문제까지 포함한 인간 본성 차원의 문제를 겪으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 구조와 정책 면에서 차등을 두고 이주노동자들을 3등 시민으로 제한해 왔던 자국민의 몫으로 온전히 남게 되었다.

사랑과 신뢰가 아닌 활용도에 맞춘 방식으로 사회에 고착된 이주노동자들이 서서히 우리 사회의 가족으로, 시민으로 되돌려지고 있다. 여전히 하나의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사회문제였던 것이 아니다. 본토인이 이주노동자의 실존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를 사회문제성을 내포한 인간으로 학습하고 그러한 사회로 발전해 온 데서 기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산소망교회

이주민선교

온가족예배

유관기관 위디국제선교회, (사)피드더칠드런 한국위원회
명학마을 작은도시관, 보아스의발

산소망교회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www.sansomang.org
031-468-9191

환대를 넘어서는(Beyond) 글로벌 사회의 이주민 선교

지역교회 이주민 사역자 세우기와 타문화권 제자훈련의 중요성

청주 서원경교회
외국인교구 담당목사
장로회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



현한나 박사

국내 이주민과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다문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2006년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선언하였다. 이후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등 다문화 정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2013년부터 난민법을 통해서 난민 심사 및 난민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난민 심사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써 최근 3년 사이 난민 인정 비율이 1%를 웃돌며 국제 사회의 부정적 평가를 벗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본격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던 시기, 한국교회도 발맞추어 국내 이주민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 중심의 지역교회의 구조 안에서 외국인을 향한 혐오증과 무관심으로 인해 국내 선교적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보내는 것만 선교로 인식하고 국내 선교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디아스포라와 이주민들을 새롭게 등장하는 선교적 역량으로 믿고, 다양한 언어·문화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및 국내 이주자들이 적합

한 제자 훈련을 통해 성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중소 교회와 선교단체의 실제적인 준비가 협력적으로 이루어져 역파송에도 힘써야 한다. 타문화권 선교사가 자문화중심주의를 버리고 문화적 간격과 보이지 않는 차별편견을 극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호 문화 이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장벽을 허물고 타문화 감수성을 함양하여 국내 이주민들의 세계관에 대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니엘 그루디(Daniel G. Groody)의 네 가지 이주민 신학적 관점을 살펴보면, 먼저 이마고 데이(Imago Dei)의 실현 곧 하나님의 시선(Visio Dei)으로 모든 이주민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마고 크리스티(Imago Christi)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나아가도록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에게 제자훈련을 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환대를 베푸는 기존의 사역을 넘어서는 완성 과정이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이주민이 사회적 위치와 문화적 생활이 자국민과 동일하게 향상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성육신을 통해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처럼 자신의 새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별뿔 데이(Verbum Dei)와 정은 말씀 되신 그리스도 곧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kenosis)' 신학이 이주와 난민에 대한 신학의 형성에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미시오 데이(Missio Dei)는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을 넘

어가는 과제 곧 다중심적 접근(Polycentric approach)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민자와 난민'을 향하여 기득권이 나아가기보다는, 상호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 휘틀리대학(Whitley College) 선교신학자였으며 난민과 다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를 몸소 실천했던 로스 랑그미드(Ross Langmead)가 주장한 환대(Hospitality)에 관한 열 가지 실천모델이 있다. 대부분 환대를 베푸는 것을 먹이는 사역으로만 생각하지만, 환대에도 다양한 사역과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한국은 다문화를 환영하고 상호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다종교 배경의 이주민들을 이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환대의 열 가지 실천모델은 다음과 같다. ①난민의 권리 보호 ②정치적인 활동 참여 ③난민 정착 돕기 ④피난처 제공 ⑤다문화를 환영하는 교회 환경 ⑥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움 ⑦다종교간의 대화 ⑧환대자의 윤리적 의식 ⑨식사와 친교 ⑩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모심

또한 공산권에서 온 사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에 있는 216만 체류 외국인들 가운데 유학생을 비롯하여 노동자로 들어온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2023년 통계 기준 한국계 중국인 60만여 명, 중국인 24만여 명으로 약 38%를 차지한다. 이는 가장 큰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다는 하지만 정작 선교의 대상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다. 공산권 이주민 유입은 베트남을 비롯해 여

전히 군부 정권이나 정부의 압력 아래 종교적 박해가 심한 선교권 현지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전도와 제자훈련의 기회를 효율성 없이 놓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회에 데려오거나 전도해 오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문화권에서 온 회심자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서로의 차이점을 배워가고 존중하는 태도이다.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써 이주민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줄 때, 이들의 지역사회 커뮤니티도 성장하고 국내의 많은 중소형 지역교회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만일 이주민이 기존의 문화권에서 팽박받고 열등감과 수치심 가운데 살아갔다면, 옛 종교에서 가졌던 우월감으로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는 유혹 속에 교회 오기를 거부하거나 새 정체성을 부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역자들은 이주민이 속한 관계망 안에 작동하는 공동체에 대한 거부감 및 방어기제를 파악하고, 그들의 정체성 혼란과 정착 과정을 길게 보고 도와야 한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영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은 한국 사람처럼 되거나 한국에 적응하는 것과 다르다.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환경과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고, 과거 종교 문화적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교회 공동체는 지속적인 영적 동반자로 함께 서야 한다. 이주자들의 적응 문제뿐만 아니라,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외국인 범죄나 일자리 이탈 등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통합 정책과 다문화 교육방향을 다문

DIASPORA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이주민선교 정보를 공유하고 소식을 전하는 디아스포라신문의 문서선교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구독신청: 010-7418-0191 ※ 후원계좌: 국민은행 264401-04-34307

화 가정에 대한 한국사회 흡수 및 적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보다, 한국 자국민들이 다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적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쌍방향식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결혼이주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여성 리더십 훈련·양성으로 여성 사역자들을 현장 상담 및 교육가로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고, 여성들을 위한 사역 현장의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 원래부터 이방인으로서 무대에 등장할 혈통적 이스라엘, 언약

백성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사렛 갈릴리의 변방에서 시골뜨기 어부들을 찾아 유대인의 경계를 넘으셨고, 사마리아로 조연급들을 찾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먼저 부여하셨다. 여전히 자신을 '호스트'로 여기는 한국교회도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게스트'로 서 있는 자신을 곧 발견하고, 이주민 사역자들에 의해 '환대'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환대의 자리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와 그 몸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Eucharist) 장소임을 깨닫는 겸손과 비움의 신학적 자세가 필요하다.

환대의 열 가지 실천모델

- | | |
|-------------------|-------------------|
| ① 난민의 권리 보호 | ⑥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움 |
| ② 정치적인 활동 참여 | ⑦ 다종교간의 대화 |
| ③ 난민 정착 돕기 | ⑧ 환대자의 윤리적 의식 |
| ④ 피난처 제공 | ⑨ 식사와 친교 |
| ⑤ 다문화를 환영하는 교회 환경 | ⑩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모심 |

디아스포라 선교의 전략적 방향: 국제학생 사역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월 김성훈 선교사의 저서 <마지막 시대의 모략: 디아스포라> 본문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번 호는 본서 4장의 '디아스포라 선교의 전략적 방향성' 내용을 요약하였다.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글로벌디아스포라포럼(Global Diaspora Forum)에서 발제된 '디아스포라 선교의 전략적 방향'의 논의 영역은 △국제학생 사역 △BAM(Business as Mission) △디아스포라 상황의 아이들 △테크놀로지와 디아스포라 △국제교회를 통한 대위임령 완수의 잠재력 △난민에 대한 선교적 접근 △디아스포라 상황 속의 지역교회의 역할 △해양 선원 선교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국제학생 사역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발췌하고, 나머지 영역은 다음 호에 이어서 게재한다.

로잔운동이 학업과 관련한 디아스포라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2004년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로잔

파타야 포럼을 통해서이다. 로잔운동은 국제학생 사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3차 로잔대회에서 레이튼친(Leiton Chinn)을 로잔 국제학생 사역(International Student Ministry)의 대표(the Lausanne Senior Associate for ISM)로 임명했다.

로잔 국제학생 사역은 학업을 위해 해외로 온 이들 외에도 취업을 위해 비자를 받아서 온 청년들까지 포함하는 반면에, 이주민의 자녀 및 난민 등은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발적 동기를 가진 교수나 교직원 등의 교육기관에 속한 사람들이 국제학생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한편,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기독교 국제학생들을 파송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현재 국제학생 사역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단체로는 국제복음주의학생회(IFES)가 있으며, 호주·캐나다·네덜란드·미국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사역 단체는 1959년에 호주에서 시작된 OCF(Overseas

Christian Fellowship)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SIM선교회, 루터교, 하나님의성회, 미국장로교 등이 국제학생 사역에 참여하였다. 국제학생 사역의 기원으로 알려진 단체는 1911년 존 모트가 시작한 CFR(Committee on Friendly Relations among Foreign Students)로,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로 개칭하여 1950년대까지 40년 동안 활동하기도 했다.

국제학생 사역의 전략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전도종족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다. 둘째, 미래의 세계 지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이다. 셋째,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세계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다. 넷째, 저비용 고효율 사역 중 하나이다. 다섯째, 해외 사역을 가기 전 시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교이다. 여섯째, 은퇴사역자들이나 해외 사역 후 귀국한 그리스도인에게 특화된 사역이다. 국제학생들의 초기 흐름은 서구 국가 위주로 흘러갔으나, 2000년대 이후로 아시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국

제학생 유치를 시도하면서 이제는 사역 전략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함을 예견할 수 있다.

현대 선교계에서 가장 덜 개발되고 잠재적 성과가 큰 전략이 '의도적인 동원(the deliberate mobilization)'인 것을 고려하면, 국제학생 사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역임에 틀림없다. 크리스천 학생들을 훈련하여 해외로 보내는 일은 일종의 '역 국제학생 사역(reverse ISM)'이다. 이에 기독교 학교는 해외 유학을 장려하고, 교수들 역시 의도적으로 교환교수 프로그램을 통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또한 선교단체는 해외연수나 유학 프로그램 등의 방법으로 이미 사역지에서 국제학생을 받을 준비가 된 현장선교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학 후 귀국하는 학생(Returnee)들에 대한 본국 수용을 위한 장치가 지역교회나 현장사역자 중심으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글 김성훈(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law.com
www.d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기여)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한국에서의 '모자이크 선교 교회' 모델에 대한 연구



두란노해외선교회
아랍권 선교사(2003~2009)
안산 온누리M센터 담당 목사

노규석 목사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다문화 선교는 한국 사회의 급변과 맞물려 더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다문화 선교에 참여하는 한국교회는 '다양한 한국형 다문화 교회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20세기에 개척된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단일문화권 교회'(mono-cultural church, M¹)였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사회가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다문화 선교에 참여하던 일부 교회에 전통적인 한국교회와는 다른 형태의 교회론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교회는 이주민을 선교의 대상으로 타자화하던 '단일문화권 선교 교회'(M¹)의 모습에서,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로 구성된 '모자이크 선교 교회'(Mosaic mission church, M²)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다문화, 다언어, 다민족으로 구성된 한국형 선교적 교회를 '모자이크 선교 교회'(Mosaic mission church, M²)라 명명하고자 한다. 이 교회는 존재론적(being)으로 그리고 사역적(doing)으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수행하며, 지역교회(modality)이면서도 선교단체(sodality)적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단일문화권 선교 교회'(M¹) 모델로 다문화 선교에 참여하던 한국교회는 점차 그 형태가 '모자이크 선교 교회'(M²) 모델로 변화되기도 한다. M²모델에서는 해외 타문화 선교와 국내 다문화 선교의 상호작용을 깊이 인식하고, 두 가지 선교의 융합을 추구한다. 이 교회들은 이주민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선교의 동역자로 대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와 성도로 여긴다.

M²교회에서는 전통적인 복음 선교와 함께 복지, 교육, 상담, 인권, 직업 개발 등 총체적 선교를 병행하며, 이를 위해 교회(modality)와 선교단체(sodality)의 병행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각 국가 및 언어별로 구성된 예배 공동체들을 개척할

	단일문화권 선교 교회(M ¹)	모자이크 선교 교회(M ²)
사역 방향	이주민들의 필요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선교	공동체 상호 간의 지원, 수평적인 선교
사역 중점	공화국 사역에서 제자화로, 제자화에서 역파송 선교로	예배 공동체 형성
리더십	복음 전도 중심	총체적 선교 + 복음 선교
관점	한국인 중심	현지인과 한국인 공유
영성	이주민은 전도와 사회통합의 대상	한국인과 이주민 상호 문화 인정과 존중
예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교회와 선교단체	각 언어별/국가별 예배 성장	다언어/다국적 연합예배
교회와 선교단체	교회 중심의 선교 - 교회 안으로	교회와 선교단체의 융합선교 - 교회 밖으로
해외선교	다문화 선교는 해외선교를 위한 보조적 선교방법	국내 다문화 선교와 해외 타문화 선교의 융합선교 추구
공동된 특징	1.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교회들로 존재 2. 이중 언어, 다중 언어 구사하는 성도들이 많음 3. 다문화 교회 외국인 성도 다수가 1세대 신앙. 4. 다문화 교회 성도들은 타문화 이주 경험 공유. 5. 다문화 교회 성도들은 역파송 선교에 적극 참여함.	

뿐 아니라, 예배 공동체들의 연합을 중요시 여긴다. '단일문화권 선교 교회'(M¹)가 '이주민들에게'(mission to diaspora)에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형태라면, '모자이크 선교 교회'(M²)는 '이주민들을 통한, 그리고 이주민들을 넘어서'(mission by diaspora, mission beyond diaspora)는 형태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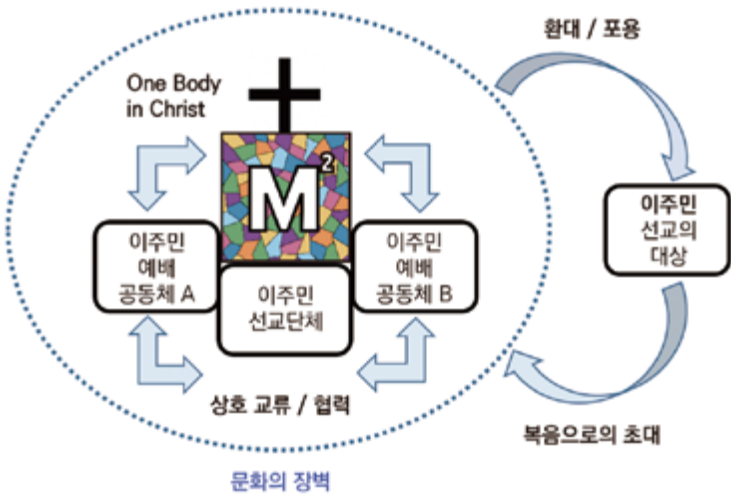
세계적인 이주현상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mega trend)이다. 국내외 학자들은 이주민 자체가 새로운 선교지일 뿐 아니라, 이주민들 자신이 선교의 주체가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세계선교도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향해 가는 '전방향 선교 시대'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들이 다양한 모습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자이크 선교 교회'(M²)의 등장과 성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양성이 기본이 되는 다문화 사회에서 전통적인 '단일문화권 교회'(M¹) 모델 하나로는 한계점이 분명하다. 한국교회는 사도행전의 안디옥교회 모델

을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자이크 선교 교회'(M²)를 다양한 이주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시도해야 한다. 예배와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듯, '모자이크 선교 교회'(M²)는 지역교회(modality)와 선교단체(sodality)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융합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열방을 사랑하사 선교하시는 한 분 하나님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언어, 다문화, 다민족의 다양성(diversity)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united) 됨을 이루는 '선교적 존재'(missional being)가 될 수 있다.

시대적 변화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요구되는 것은 시대적, 문화적,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여 교회를 '선교적 존재'(missional being)로 변화시키는 용기이다. 고정된 개념의 교회가 아닌,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며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시도하는 '성육신적 선교'(incarnational mission)가 필요하다.

※ 모자이크 선교 교회(M²) 모델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살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Shalom CHURCH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살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랑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영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기독교학교

주일예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예배 19:30 / 목요일회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생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귀국 선교사의 눈으로 바라본 이주민 선교

GMS/위대국제선교회 선교사
MMTS 코디



글 최현주 선교사

2006년 인도 선교사로 파송 받기 전 교단 선교사 인준 면접이 있었다. 면접 중 선교사 지망생의 진심을 담아 "인도에 제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때 필자를 인터뷰하시던 선교사님의 대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선교지는 더 이상 선교사의 뼈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로부터 17년이 흐른 지금, 세계적으로 선교 환경이 변화하면서 실제로 선교지는 더 이상 선교사의 뼈를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비자발적으로 철수하는 귀국 선교사가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로 가장 눈에 띄는 요인은 민족주의와 종교적 극단주의로 인한 선교사 비자 거절과 추방, 입국 거부이다. 거기다 팬데믹으로 선교지를 떠난 여러 선교사들은 재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조금 더 근본적인 요인은 '현지인 중심 선교'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선교지 이양이다. 실제로 선교지 교회의 성장으로 곳곳에서 자연스러운 선교 이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속지주의에서 속인주의로

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전통적인 선교는 선교사를 특정 지역에 파송해서 사역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선교의 패러다임도 속지주의에서 속인주의 선교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선교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임시 귀국한 장기 선교사는 1,230명인데, 그중에서 치안·전염병·비자 거절·추방 등으로 비자발적 철수한 장기 선교사는 36.9%인 453명이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변화하는 선교 환경으로 생겨난 귀국 선교사들을 향한 계획과 섭리를 분명히 가지고 계심을 믿는다. 그것이 바로 이주민 사역으로의 전환과 재배치이다.

필자도 인도 비자 연장 거절로 국내에 귀국하면서 작년부터 이주민 사역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귀국 선교사의 이주민 사역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첫째로 해외에서 나그네와 이주민으로 살아간 경험이 이 땅의 이주민을 향한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로 귀국 선교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타문화 선교 경험과 자질이 이주민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로 귀국 선교사는 이미 현지 사역을 통한 선교지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효과적인 역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로 귀국 선교사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이주민 선교를 일으키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귀국 선교사의 사역 전환은 이처럼 여러 가지 필요성과 장점이 있지만 극복해야 할 도전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국내 이주민 사역도 선교이고 국내 이주민 사역자도 선교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정함동이나 고신의 경우 이전부터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지부를 두고 있다. 최근 기성, 예성, 백석, 감리교 등 여러 주요 교단에서도 이주민 사역자를 선교사로 인준하고 있다. 하지만 교단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아무리 이주민 사역 경험이 있어도 해외 선교 경험이 없는 경우 이주민 선교사 인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국내 이주민 선교와 해외 선교가 동등하게 여겨지기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송 교회 담임 목회자와 한국 성도들의 인식 변화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단에서 이주민 선교사 인준을 해준다고 해도 실제로 파송하고 후원해 주는 주체는 결국 지역교회와 성도들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해외에 나

가서 사역하는 것만이 선교라는 전통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때 한국교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민 선교 교육과 훈련이다. 최근에 위대선교회 MMTS(이주민선교학교) 클래식 24기 과정이 끝났는데, 국내 이주민 선교를 이미 하고 있거나 소망하고 있는 평신도·목회자·귀국 선교사들이 함께 훈련받고 앞으로 사역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울산에서는 예수전도단 팀을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지역교회에서 일일 이주민 학교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훈련들이 지역별, 교회별로 더 많이 생겨나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길 소망한다.

팬데믹 이후 더 급변하게 될 세계선교 환경 가운데 앞으로 선교사의 비자발적 철수는 계속되고 귀국 선교사도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모두가 염려하는 것처럼 한국선교의 쇠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한국선교의 부흥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바로 귀국 선교사의 국내 이주민 선교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귀국 선교사가 국내 이주민 선교로 전환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그 선교의 물결에 동참함으로 다시 한번 선교 한국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기도한다.

이주민 선교와 선교적 교회: 에클레시아를 넘어 디아스포라로

이주민선교훈련학교(MMTS) 24기를
심긴 소감문

지난 5월 29일 MMTS 클래식 24기 연구발표와 수료식이 온라인(ZOOM) 상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기수는 다양한 배경의 선교사와 목회자, 평신도들이 함께한 덕분에 각자 이주민 사역을 발표하는 시간에 다채로운 선교의 향연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영예권 이주민을 위한 사역부터 중앙아시아 유학생과 근로자, 힌두와 이슬람권 유학생, 결혼이주여성, 이주민 2세, 중도입국자녀, 우크라이나에서 온 인도적 체류 신분 고려인 사역 그리고 이주민을 위한 방송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교 영역의 비전이 나누어졌다.

그분들의 나눔을 들으며 주님이 꿈꾸신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에클레시

아', 즉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명을 따라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영광으로 온 세상을 채우는 일, 즉 디아스포라가 되는 데 있다. 이것이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란 함께 모이는 에클레시아 공동체일 뿐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이어야 한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성도가 뿔속부터 선교적 존재가 되고 일상에서부터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야말로 자연스럽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믿는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아직도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선교라는 인

식이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선교사를 필드에 내보내고 응원하는 관중이 아닌 직접 필드에서 뛰는 선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번 MMTS 수료생들이 설문지에 응답한 소감을 읽으면서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되었다. 수료생들이 나눈 소감 일부를 소개한다. "이주민 선교의 다양한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나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도전을 받은 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많았고 무작정 해외로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

만 이제는 아닙니다. 국내에서의 사역 또한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선교의 정신도 배웠습니다. 이주민사역보고서에 작성한 대로 저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해외로 나가야만 한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선교에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국내에서 선교에 참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주민 선교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국내 이주민 선교야말로 한국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주민 선교를 통하여 앞으로 한국교회가 에클레시아를 넘어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세워지길 기대하고 기도해 본다.

글 최현주 선교사

AEA, 40주년 대회 앞두고 한국서 이사회 및 준비 모임 가져



▲ AEA 정기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복음주의연맹(AEA, Asia Evangelical Alliance)이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센툴에서 열리는 4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지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안양 새중앙교회 새중앙선교센터에서 정기 이사회 및 AEA 위원회 실행위원장 모임, TF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AEA 40주년 기념대회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센툴(Sentul) SICC 타워에서 '새로운 환경에서의 아시아 교회와 선교'(ACML, Asia Church and Mission in A New Landscape)라는 주제로 세대

간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아시아 교회 및 선교 지도자, 목회자, 청소년, 여성, 비즈니스 지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AEA의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시대에 아시아 교회와 선교를 위한 7개 어젠다를 논의하며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40주년 대회에서 다룰 7개 어젠다는 '선교'(Missions), '가정'(Family),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Media and Digital Technology), 'MZ 세대 회복 및 동원'(Faith Expression of Younger Generation), '리더십과 신

학 교육'(Leadership and Theological Education), '일터'(Marketplace), '새로운 환경에서의 지역교회 주도'(Doing Church in The New Landscape)이다.

이번에 한국에서 진행된 모임에는 AEA 사무총장 밤방 부디안토(Bambang Budijanto) 목사를 비롯하여 실행이사들과 7개 위원회(어린이, 여성, 디지털&미디어, 선교, 구호&개발, 종교 자유, 청소년)의 위원장, ACML을 위해 작년 11월 구성된 7개 태스크포스(TF) 리더 등 16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AEA 실행이사인 한정국 목사, AEA 선교위원회 위원장인 문창선 목사가 참석자인 동시에 호스트로 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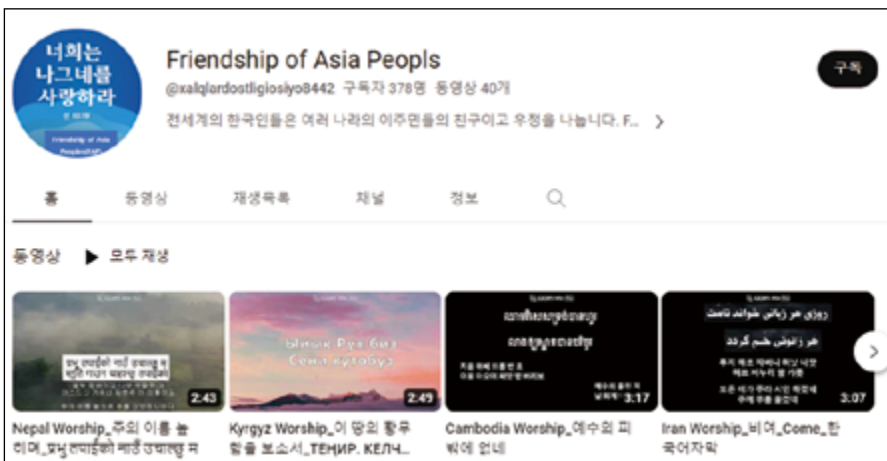
5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TF 리더스 포럼이 열렸고,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실행위원장 모임에서는 실행이사 7개 위원회 위원장이 7개 TF 리더의 각 어젠다에 대한 리서치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듣고 함께 토론했다. 31일은 정기 이사회로 진행됐다.

밤방 부디안토 AEA 사무총장은 40주년 대회와 관련해 "코로나 이후 현지점에서 아시아 교회가 어떻게 재도약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지 지금까지의 문제를 분석, 평가하며 해결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비전과 계획을 나누는 대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다.

한정국 AEA 실행이사는 "디아스포라 선교와 아동 및 여성 학대, 가정 제자도, MZ 및 알파 세대를 위한 미디어 목회 및 전도, AI 등 발전된 기술을 선용하는 방법 등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경험한 아시아 교회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 적합한 교회와 신학, 선교학을 개발하기 위해 논의할 때"라며 "서구 교회의 지원이 아닌,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AEA에 속한 17개국이 각자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러 기적을 맛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이주민 선교 위한 찬양 유튜브 채널



화성 온누리M센터에서 이주민 선교를 위한 찬양 유튜브 채널 'Friendship of Asia People'(이하 이주민 선교를 위한 찬양 채널)을 개설했다. 매주 각 선교지 언어로 된 찬양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캄보디아, 우즈베크, 키르기스, 타지, 이란, 몽골, 네팔 언어로 된 찬양 70여 개를 업로드했다.

이주민 선교를 위한 찬양 유튜브 채널은 외국인 사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와 경북 밀양의 시골교회에서 이주민 선교를 위한 찬양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으로 캄보디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최명현 선교사(화성M센터)는 "이주민 선교를 위한 찬양 유튜브 채널이 거친 노동 생활로 인해 목마른 이주민들에게 시원한 물 한 모금과 같은 찬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면서 "이주민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온라인 영상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Withee Labor Consulting

위디노무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8 신산빌딩 210호
대표노무사 : 이 재 호

Mission Statement

전도서 3:22-4:1의 말씀을 기초로

- 1)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불의한 권세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3:22~4:1)

사업(BAM)영역

1. 개별 사건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2. 기업 컨설팅 및 자문 : 임금·인사노무 시스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
3. 공익사업 : 국선노무사(부당해고, 체당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 등
4. 사회공헌활동 :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5. 법정 의무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6. 선교단체 & NGO 컨설팅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이재호 목사(노무사) 소개영상]

미국에서 온 카렌 디아스포라 학생 '빠대와'

GMS 파송 선교사
아신대학교(ACTS) 연구교수
태국카렌침례총회 -
실로암신학교 교수



오영철 선교사

글

태국 카렌 침례총회 실로암신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중에, 미국에서 한 학생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다.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빠대와'라는 이름의 청년은 미국 워싱턴 주에서 온 카렌 디아스포라였다. 처음 마주했을 때 그의 겉모습에서는 미국인이라는 인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여느 학생과 같이 단순한 옷차림에 노란 타마린드(Tamarind) 나뭇가루를 얼굴에 바른 전형적인 카렌 학생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빠대와는 부모님이 버마에서 살다가 전쟁을 피해 태국의 '매라모'라는 난민촌으로 피신하였고, 자신은 그 난민촌에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UN에서 인정해 주는 '실향민' 신분, 즉 고향을 떠난 피신자(displaced people)였다. 빠대와는 태국에서 태어났지만 태국 국적도, 부모의 국가인 버마 국적도 없는 무국적 신분이었다. 그렇게 10년을 난민촌에서 보낸 빠대와는 태어난 나라에도 부모의 나라에도 속하지 못한 채 결핍 속에 지냈다고 한다. 나도 그 난민촌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기에 그 삶이 얼마나 소외되고 어려운 삶인지를 알고 있었다.

빠대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난민촌에서 지내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미국 정부가 빠대와의 가족을 난민으로 받아주면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 한순간에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시민이 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난민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새로운 나라에서 가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향한 곳은 시애틀에 있는 카렌 공동체였다. 그러다 부모님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워싱턴으로 이사를 간지가 어느덧 10년이 되었다고 한다. 이제 빠대와의 가족은 미국에 정착하여 현재 어머니는 일식당, 아버지는 정육점에서 일을 하신다. 그리고 카렌 교회에서 카렌 디아스포라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빠대와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짧은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무국적자에서 미국 시민권자라는 변화를 겪은 것만으로 그가 얼마나 극단의 인생을 살아왔을지 짐작할 뿐이다.

그런데 빠대와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 빠대와의 가족이 시애틀에 처음 정착할 때 가족에게 도움을 주신 분과 내게 카렌어를 가르쳐준 카렌어 선생님이 동일한 분이었던 것이다. 그분의 성함은 '매기 포'로, 사연 많은 카렌 여성 지도자였다. 그분의 아버지는 카렌 정부(Karen National Union)의 고위직이었는데, 1996년 버마군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어 가족이 급하게 태국 치앙마이로 피신하게 되었다. 마침 나는 그 당시 1년 반 동안 태국어 공부를 마치고 1997년 치앙마이로 향한 시기였는데, 매기포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2년 동안 카렌어를 배울 수 있었다. 이후에 그분은 미국에 난민 신분으로

갔지만, 그때의 인연으로 지금까지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런 매기포 선생님이 빠대와 가족이 미국에 정착할 때도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은 당시 시애틀에서 담임목사였으며, 빠대와 가족은 2년 동안 그분에게 영적으로 돌봄을 받았다고 한다. 매기포 선생님의 가족도 여러 사연이 있지만, 그분은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다른 카렌들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끌어주셨다. 내가 매기포 선생님에게 카렌어를 배운 시기는 빠대와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때였다. 그런데도 2023년 태국 어느 신학교에서 별개의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한 사람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다. 나는 즉시 매기포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고 일체감을 느꼈다.

빠대와의와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주제는 곧 '디아스포라'로 향했다. 빠대와는 올해 워싱턴에 있는 헤리티지대 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 정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곳에 왔다고 했다. 고향을 떠나 수차례 이주를 경험한 그는 '디아스포라' 그 자체였다. 나 역시 고향을 떠난 일종의 디아스포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루시시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는 빠대와의에게 제안을 건넸다. "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디아스포라로서 디아스포라에 의한, 디아스포라를 위한, 디아스포라와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해보지 않을까?"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밝은 모습으로 대답했다. 이에 나는 빠대와의에게 마침 미얀마에서 온 또 다른 디아스포



▲ 난민으로 살다 미국을 거쳐 태국에 오게 된 빠대와

라 학생 '아무'를 위해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아무는 미래에 대비하여 영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빠대와는 주저 없이 가르쳐주겠다고 했고, 우리는 잠시 사무실에서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나누었다. 두 디아스포라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기대된다.

빠대와의가 살아온 23년의 짧다면 짧은 인생 여정 속에는 많은 사연이 있다. 난민촌에서의 생활 그리고 갑작스러운 미국 정착까지 모두 그가 계획하지 않은 삶이었을 것이다. 어렵게 생활하다가 미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경험하면 그 속에 안주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도, 빠대와는 미국에서의 안락함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다. 중학교 때 목회자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가 목회자로 헌신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빠대와의의 체구는 작지만 그의 내적인 영성은 결코 작지 않다. 편안한 미국 생활이 아닌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의 결심에서 그것을 본다. 하나님께서 인생 여정을 이끄심은 참 다양하고 신기하다. 그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선교사로서 큰 특권이다.

SOROK UNI FOUNDATION, INC.
Rebuilding Lives, Empowering People
Founder & Chairman: Dr. Jae J. Jang

Relief

Based on the nature of Sorok's clientele the foundation provides temporary relief which varies from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Sorok also launch 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under this program in times of calamity or disaster in the Philippines.

SUFI CORE PROGRAMS

Sorok encourages and help individuals to be empowered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following projects.

Empowerment

Rehabilitation

Sorok provides a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persons affected with leprosy and homeless street people.

PROGRAMS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Sustainability

SOROK UNI COMMUNITIES

NATIONAL CAPITAL REGION

SAN ANTONIO QUEZON PROVINCE

REGION IV-B OCCIDENTAL MINDORO

MCS PASOLOBONG, ZAMBOANGA CITY

서울권역

나섬교회(나섬공동체)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1

T 02-446-4195

H www.nasom.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서남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이슬람권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권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권예배 주일 오후 2:00

남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반포동)

T 02-2023-5600

H www.namseoul.org

북향민예배 주일 오전 10:4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

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높은뜻광성교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순총빌딩 5층(사무국)

T 02-717-5025

H www.gwks.org

다문화가정예배 주일 오전 11:00

동신교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43(창신동)

T 02-764-1181~4

H www.dongshin.or.kr

몽골인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이란인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인예배 주일 오후 1:30

동일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5길 21

T 02-2208-0811~3

H www.dongilch.com

몽골부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부예배 주일 오후 1:30

필리핀부예배 주일 오후 1:30

새오름교회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길 48 미래오피스 301호

T 010-3512-6701

H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서울네이션즈교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17번지 3층

T 02-793-0193

H www.gfm153.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다하나국제교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88-39

T 02-2269-0654

H

다하나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토요일 오후 6: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

H

글로벌예배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 주일 오후 2:00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생수가흐르는숲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2 2층 the cafe HEIMz

T 010-8637-0333

H

글로벌예배(오전)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오륜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

H www.or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벵갈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여의도순복음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5

T 02-6181-6154

H www.yfgcinternational.com

영어예배 주일 오전 9:00 / 11:00

영어청소년 주일 오전 11:00

영어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2:4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스페인어예배 주일 오후 3:00

은평성결교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3길 10

T 02-383-0071

H www.epehc.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2:30

ISF(국제학생회)

서울 성동구 무학로2길 10길 6층

T 02-2051-7040

H www.isfkorea.orgsangdang.org

수도권역

새중앙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

H www.sja.or.kr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30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30

몽골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 주일 오전 10:30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

H www.central.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새터민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승리다문화교회(승리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산로 486-30

T 031-911-2289

H www.slmcc.or.kr

일요일예배(성인) 주일 오전 11:50

다문화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11:50

캄보디아공동체 주일 오전 11:00

베트남공동체 주일 오후 2:00

다문화가정공동체 주일 오후 2:00

몽골공동체 주일 오후 2:00

시흥네팔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T 010-9463-5857

H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

H www.aicindonesia.co.kr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8:00

안산동산교회(WM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7(WM센터)

T 031-400-1111

H www.d21.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 예배

송우벗사랑베트남교회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로루로 92 안경박사 3층

T 070-4416-5830

H www.kvim.hompee.com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5:00

안산제일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T 031-485-0955

H www.ansan1.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안양제일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11-10

T 031-449-1195

H www.anyangjeil.org

영어통역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암미선교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24

T 031-571-6554

H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열린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T 1661-4372

H www.yullin.org

중국팀예배 주일 오전 11:30

열린열방선교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1

T 031-506-6044

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1:00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예수향남교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117

T 031-354-9221

H www.jesushn.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예승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장로 38-4 무지개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

H

네팔어예배주일 오전 10:30

네팔여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새생명태국인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

H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순복음열방선교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412 2층

T 032-874-8291

H

다문화통합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다문화주일학교 주일 오후 1:00

위대국제선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화로 66-16

T 031-385-4680

H www.withee.org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2:30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30

올프렌즈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

H www.allfriends.kr

캄보디아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8:00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다문화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1:00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458

T 032-424-8511

H www.hyo7.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5: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주안장로교회

안내 접수

문의
1215grace@naver.com

경상권역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T 031-918-9100
H www.kwangsung.org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H www.dream10.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광탄열방교회(네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091 2층
T 010-9002-0033
H
네팔어주일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어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네팔어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8:00

분당매일교회 살롬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
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순복음생명수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2층
T 010-9948-8212
H
러시아어 주일예배 오전 9:00 / 11:00
러시아어 주일학교 오전 11:00
러시아어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첫째 주 제외)

아시아인마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
H www.ainma.org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
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할렐루야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T 031-780-9500
H www.hcc.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H www.goh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H www.dgmc.co.kr
중국어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T 053-756-1701
H www.daeyoung.org
캄보디아예배 주일 오전 11:15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외국인한글학교 토요일 오후 8:00,
주일 오후 1:00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침로 106(옥포동)
T 055-688-0691
H www.sumgim.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시티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T 070-8648-0668
H ulinch0229.wixsite.com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한국어-영어연합예배 매월 첫째 주일
오전 10:00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교회/센터: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2호
도서관: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1호
T 054-772-0691
H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권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호산나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명지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하단동)
T 051-209-0191
H www.hosanna21.com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T 055-333-6321
H www.gloria.or.kr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구미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임수로 80
T 054-471-8650
H www.gumijeil.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T 053-756-1701
H www.ds-ch.org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예배 주일 오전 11:2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2:00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T 052-242-1171
H www.upcweb.ne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T 010-7493-0080
H www.vfu.co.kr
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7: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GFC국제유학생센터(부산대)
금정구 금강로 279번길 78 금양원룸 지하
T 010-7726-1310
H
영어예배 토요일 오후 7:00

호남권역

갯소리장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T 010-3633-0864
H www.godpleasing.modoo.at
러시아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
T 062-375-0400
H www.wemwem.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T 010-3604-8139
H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11:30

목포주안교회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 061-272-4908
H www.mokpojuan.com
외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목포사랑의교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6번길 7
T 061-284-8899
H www.ds-ch.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7: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3: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7:00

장동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87
T 063-211-1597
H www.jangdong.org
모자이크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30,
수요일 오후 7:30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5
T 063-274-3228
H www.antiochia.org
중국어예배주일 주일 오후 12:5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 이주민예배 안내는 현재 서울권, 수도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
경상권(대구/울산/부산), 전라권(광주)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강원이나 제주 등 빠진 지역의 교회는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 모임만 안내해드립니다.
이주민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교회의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충청권역

상당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1
T 043-288-2203
H www.sangdang.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선교기도회) 주일 오후 1:30
러시아예배 주일 오전 9:00,
오후 12:00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 facebook.com
/groups/1616235851794814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T 041-558-9191
H www.heavencc.net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디아스포라신문** newspaper

발행인 문창선 목사 · 편집인 문예은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문의: 010-7418-019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구독 및 광고문의를 환영합니다

QR
구독 신청 QR

To convene a catalytic gathering and conversation among leadi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of diaspora missions of Asians worldwide and in Asia.

A CONSULTATION ON DIASPORA MISSIONS IN AND BEYOND ASIA

Theme: *Asians in Diaspora and Diasporas in Asia*

Date: August 1 (Tuesday 2:00PM) – August 5 (Saturday 2:00PM), 2023.

Venue: Shalom Hotel, Jeju Island, South Korea

Objectives:

- Learn and discuss about mission by, through and among Asian diasporas worldwide.
- Assess the impact of migration to, within and from Asia.
- Explore new horizons for diaspora missions in the contexts of economic migrants, international students, family migrants, internal migrants and forcibly displaced peoples.
- Create a forum for scholars and practitioners to network and collaborate.
- Compile proceedings of the consultation into a future publication.

Save The Date!

August 1 - August 5, 2023

Visit www.global-diaspora.com for more details

Sponsored by:

